

2021년 2월 28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9편 2~3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시편 9편 2~3절)

◎ 찬 송 / 202장(통241)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다니엘 2장 1~13절(구약p.1232)

1.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이 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2.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 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3.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4.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5.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6.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7.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8.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9.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10.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11.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12.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13. 왕의 명령이 내리매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 말씀선포 /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

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증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인류 역사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사람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감추어진 것이 우리에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히 보여 졌고,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들임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은 더욱 지혜를 얻어 세상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도들은,

1. 계시의 주체자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 느부갓네살왕이 꿈을 꾸고 번민에 빠졌습니다. 이는 그 꿈이 중요한 의미를 지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꿈은 신이 계시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 계시하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1~7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의 꿈은 장차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듯 때론 하나님이 꿈을 통해 사람에게 계시하심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사람에게 계시하심으로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친히 보이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 주셔서 꿈을 꿀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요엘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사도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심을 전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의 주어집니다. 물론 꿈으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역사가 다 그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성령의 지혜를 얻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더욱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2.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 본문 2~10절입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 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느부갓네살왕이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을 부르고는 자신이 꾸 꿈이 기억나지 않으니 꿈의 내용과 의미를 고하라고 명령합니다. 만일 그렇게 못하면 다 죽이겠다고 엄중히 명령합니다. 꿈의 내용을 알면 해석은 나름대로 붙일 수 있지만 내용 자체를 모르니 그것을 해석하라는 명령은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왕이 정신이 이상하거나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죽이려고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1절에 “신이 답을 주셔야만 알 수 있다.”** 라는 그들의 답변이 우문현답인 것입니다. 이렇듯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또 자신의 경험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 좌절하며 낙심합니다. 다 알 수 없음으로 한탄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은 한계가 있고 사람은 자신이 경험 것 이상의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면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를 고민하고 이해하고 해결하기 보다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의 시작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자세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미련하나 하나님은 지혜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비록 이해 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시간도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 계시를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 오늘 본문에는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느부갓네살왕이 자신이 꾸 꿈조차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의 내용 자체를 기억 못하게 하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느부갓네살왕이 꿈을 기억했다면 바벨론의 술사들이 마음대로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능성 자체를 봉쇄하고, 오직 성령이 아니면 그 문제를 절대로 풀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모든 술사가 못한 것을 이제 성령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 해결케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진정한 신이심을 만전하에 드러내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계시의 영, 지혜의 성령을 부으사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지켜 행할 뿐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엡1:17)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구하여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199장(통234) 나의 사랑하는 책

◎ 폐 회 / 주기도문